

‘장애인 위한 나눔’ 국경 넘어 감동 전하다

김현주 광주 첨단단지제작소 소장, 라오스 여성에 의족 제작·지원 “작게나마 나눔 실천 기뻐”...지역서도 의수족 점검서비스 등 선행

광주의 한 장애인 의수족(義手足) 업체 대표가 해외 장애인에 무료로 의족을 지원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북구 첨단에 위치한 ‘첨단단지제작소’의 김현주(사진) 소장이다.

6일 해외 봉사단체 ‘글로벌프렌드’에 따르면 최근 김 소장에 한 가지 도움을 요청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족을 마련할 수 없는 라오스 여성 장애인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였다.

평소 나눔에 대한 의지가 강한 김 소장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의족 제작을 결정했다.

의족 하나를 제작하는 데 수백만원이 소요되지만 김 소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해 할 일”이라며 흔쾌히 나섰다.

지원 대상인 라오스 여성 ‘부흐만리’는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사지 절단 장애를 안고 오랫동안 불편한 생활을 이어왔다. 그녀에게 의족은 일상생활의 편의와 이동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자 신체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상 의족을 구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나, 김 소장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이자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글로벌프렌드 측은 김 소장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을 기리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글로벌프렌드 관계자는 “의족 제작에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김 소장님



의 통 큰 지원으로 해당 여성이 크게 기뻐했다”며 “이번 지원이 계기가 돼 더 많은 해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의족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장애인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이 된다”며 “작게나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하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이미 지역사회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해 의수족 점검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선행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소장은 “장애인들이 일상의 불편을 덜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진, 안중은 경영관리본부장 임명



한국전력은 6일 나주 혁신 도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안중은(사진)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안중은 경영관리본부장은 대구 덕원고등학교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1992년 한전에 입사해 대구본부 포항지사장, 노사협력처장, 비서실장, 상생협력본부장, 경영관리부사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안 본부장은 조직 인사관리와 정책조정, 노사관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

/임재만 기자

이중희 제18대 담양소방서장 취임



제18대 담양소방서장으로 이중희(59·사진) 서장이 취임했다.

6일 담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신임 서장은 강진 출신으로 1992년 소방에 입문해 전남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화순소방서장, 곡성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일선 현장과 행정부서의 각종 요직을 거치면서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원만하고 소탈한 성격에 조직 내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재난 변화의 흐름을 읽고 현장 중심의 효과적이고 실용성 있는 소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소방정책으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담양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윤풍식 국민산업 회장, 광주 동구에 고향사랑기부

광주 동구는 “최근 윤풍식 국민산업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윤 회장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음의 고향인 광주 동구에 기부, 특별한 인연을 더했다. 기탁식에는 흥기월 광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기부를 축하했다.

윤 회장은 ㈜국민, 국민산업, 주안이앤씨, 케이엠이앤씨, 케이엠로지스 등을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윤 회장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 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킨다. 이에 우리 회사의 최고

목표는 ‘사회 속 환원’이다”며 “광주극장 보존, 발달장애 청소년 지원, 유기동물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광주 동구의 기업사업이 ‘사회 속 환원’과 일맥상통해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윤풍식 회장의 동구를 향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기부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광주 동구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명 기자



전남개발공사 시무식...“더 위대한 전남 선도”

전남개발공사 장종모 사장은 6일 시무식에서 “전남도 정책을 지원하는 전남 유일의 공기업으로서 더 위대한 전남도 실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 서서 든든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가 되자”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이날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영평가 1위, 국가재난관리 국무총리 표창 수상, 10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 사장은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를 갖고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올해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주 에너지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담양 보존지구, 화순 삼

천지구 등 택지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또 “전남도 인구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출산율을 높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폭제가 되도록 올해 안에 진도와 고흥을 필두로 조기 착공하고 2026년 초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장 사장은 “RE100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전남도 정책에 맞춰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전남 최초 공공주도 영광 약수 해상 풍력 상업발전 연내 개시와 신안, 완도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속도를 높여 전남 에너지 사업을 공사가 선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재정 기자

이광일 전남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이 최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본부장: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중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 발전·경제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심사한다.

이 의원은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전남도 음식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도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률 상담, 이사비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광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 기자

여수상의, ‘고용 활성화 기여’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상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18개 운영기관 중 1위, 전국 173개 운영기관 중 5위를 기록하며 고용·노동행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서 3세 이하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업에게 인건비를 제공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2022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청년들이 우



수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핵심인력 확보에도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수국가산단 등 지역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목포 관광미래비전, 유달동 취약계층 백미 후원

목포 관광미래비전 회원 일동은 “새해를 맞아 최근 유달동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10kg 20포를 후원했다”고 6일 밝혔다.

목포 관광미래비전은 소상공인 살리기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목포 관광미래비전 회원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기탁받은 쌀로 든든하게 한 해를 시작하고, 새해에도 무탈하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일성 유달동장은 “이번 백미 후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보내



준 쌀을 유달동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담양읍 농가주부모임, 담양복지재단에 백미 기탁

담양군 담양읍 농가주부모임은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담양군복지재단에 백미 20kg 10포(55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농가주부모임 36명의 회원이 동지족과 호박죽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겨울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진행했다.

신부자 담양읍 농가주부모임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백미를 기탁했다”며 “내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옥 담양군복지재단 이사장은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인사

광주경영자총협회

◇송진

▲전무이사 박삼철

▲일자리사업부 부장 박은영 ▲회원사업부 수석차장 최정열 ▲재무회계팀 대리 황란

결혼

▲신승현·임미영씨 아들 재광군, 이신우·서주희씨 딸 지선양=11일(토) 낮 12시20분 더칸션 송파문정점 12층 그랜드볼룸,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문정동 651-8), 010-2610-0005.

부음

▲김애린(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 기자)씨 별세=발인 7일(화) 오전 8시30분 목포시 효사랑 장례식장 402호, 장례미사 7일 오전 10시 나주 금암성당. 061-242-7000.

▲고강민(KIA 타이거즈 마케팅팀 프로)·황진이선·유우씨 별세=발인 8일(수) 오전 광주그린장례문화원(062-250-4455).